

T V

TV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말할 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3부작 <노근리는 살아있다>	40 아침 연속극 <망설이지마>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다들거야> 30 여유민간	9 30 기본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간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월화 미니시리즈 <공주가 돌아왔다>(재)	11 00 수목미니시리즈 <맨땅에 헤딩>(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알코르 한글날 특집 심화다큐 '일의 힘'	00 SBS 12 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걸작선 <내사랑 금지옥엽>(재)	10 일요스포츠 쇼	1 35 통일전망대	30 마흔의 식탁
00 KBS 뉴스 10 2009 대전국제유주대회 개막식 50 너티나무	10 KBS 네트워크-춘천	2 15 희망나눔 무지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항이 보인다
00 KBS 스페셜	00 2TV 스페셜 <1대 100>(재)	3 05 알코르 MBC 프라이م <도시, 이야기에 희망을 걸다>	1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집다큐 <디자인&더 시티(1부)>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람의 가족 35 TV유치원 파파파니	10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 40 꼬마신사	4 00 뽀빠이 아이즈 30 먹티와 점점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비타리>(재)	5 00 MBC 뉴스 20 무한정 미소천사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테마스페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6 00 생방송 전국시대 50 MBC 뉴스	25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일 거꾸기	10 무한시대	7 00 창사 특별기획 <유인촌 장관에게 듣는다> 45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05 시사타치 떠따부다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밥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뉴스 50 월화드라마 <천사의 유혹>
00 KBS 뉴스 9	00 위기탈출 남북편 55 월화미니시리즈 <공주가 돌아왔다>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1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집 다큐 <디자인 & 더 시티 2부>
00 KBS 뉴스라인 30 오라차차 녹색시대	05 미녀들의 수다	11 15 문화콘서트 난장	05 긴급출동 SOS 24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K리그	15 생방송 시사 360 45 한국한국인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009 F3 마스터스	15 나이트 라인 45 세네모트

# “노처녀 연기 언제 또 해보겠어요”

KBS 월화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 발레리나役 황신혜

“제가 언제 또 골드미스 연기를 해 보겠어요. 아주 즐기면서 연기하고 싶습니다.”

황신혜(46)는 이렇게 말하며 깔깔 웃었다. KBS 2TV 월화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에서 유명한 발레리나이지 만 노처녀인 장공심 역을 맡아 5년 만에 드라마에 캠크한 그녀. '공주가 돌아왔다'의 시청률은 그의 연기인생 26년 이래 최악이다. 지난달 14일 4.8%에서 시작해 최근 겨우 6%대를 넘겼다. 하지만 반응은 시청률보다 훨씬 좋다. 인터넷 다시보기 접속률이 높고, 누리꾼들의 시청소감도 뜨겁다.

또한 이 드라마는 최근 예상치 못한 별명을 하나 얻었다. 바로 '선덕여왕의 발목 잡은 드라마'라는 것이다. 45%를 향해 가던 MBC TV '선덕여왕'의 시청

률이 '공주가 돌아왔다'를 만나면서 40%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하. 참,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진짜 '선덕여왕'의 발목을 잡았어요. 시청률도 좋고요. 시청률들 신경 썼으면 이 드라마 못했어. '선덕여왕'과 맞붙는데 고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저 배역과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하게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첫회 시청률들 보고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낮은 시청률이기도요. 하지만 본방송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 보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일단 관심을 받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위안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선덕여왕'을 아프게 하는

'공주가 돌아왔다'의 일등 공신은 황신혜다. 체면은 밟지않고 벗어던진 채 몸을 아끼지 않는 코믹연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40대 나이에 연하남인 레단 이사장 찬우(이재항 분)를 깨차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는 장공심의 모습은 순간순간 폭소를 자아낸다.

“사실 주저되는 신도 몇 개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며 하고 나니 '좀 더 오버해도 과하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신들이 이 어디다 보니 점점 겁이 없어져요.(웃음) 재미있으면 하는 거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황신혜의 나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 때문이다. “저



도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관리 안 해 봐도 퍼지고 흐트러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일주일에 서너 차례는 꼭 1시간30분씩 운동을 해요. 평생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의 저를 버리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제18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비특대외

**최종우들의 승부수**  
개인전 준결승 1국 5보 (79~100)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고재영 5단 (주)송림

<참고도>

<규정 9단-본보 비특대외>

흑이 최강으로 버텼으나 백 ⑩로 찌르면 우수가 곤란해졌다. 애초부터 무리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하는 수없이 흑 79로 후퇴해야 하는 것이 쓰러진다.

박광주 5단은 일단 백 80으로 기본종계 단수를 친 다음 잠시 틈을 들이더니 82로 확 뚫어버린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먹고 흑 2에는 3으로 이어 귀에서 사는 것이 상식이나 다음 흑 4의 선수와 6을 당하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국면이 유리한 만큼 우변을 내어주고 백 86까지 흑 한점을 잡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고재영 5단도 세불리를 빼지리까 느끼고 있다. 우하귀 '가'의 곳이 절대점으로 보이는데도 이곳을 틀 거를이 없다. 흑 91로 백 대마를 위협하면 다음 97로 끼우는 백점을 구사하고 99로 찌혀 최종우들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음 8월 24일 庚寅)

	36년생 매사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라. 48년생 모든 문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72년생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려라. 84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말고 분수를 지켜라. 행운의 숫자 : 02,04
	37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49년생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나다. 61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73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며 수양하듯 지내라. 85년생 시기상조니 마지막 조심을 하고 관망하라. 행운의 숫자 : 04,14
	38년생 시기상조나니 숨통이 터진 기분이다. 50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정을 확보하라. 62년생 앞으로 불평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74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13
	39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51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3년생 작시에 마무리 작업으로 외형을 즐기고 실리 편으로 집중하라. 75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라. 행운의 숫자 : 06,15
	40년생 주변의 식구가 줄어들 수 있다. 52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64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정될 것이니 준비를 잘하고 경쟁강동 하지마라. 76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17
	41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53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65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시비 송사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77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22
	42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4년생 내용은 통탄 못하리니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66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78년생 될 듯한 구상만 있고 남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9,10
	43년생 중간간의 음모를 살펴보라. 55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모든 외형을 살리워주 로 바꿔라. 79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8,20
	44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6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8년생 신중함 간 안목으로 보라. 80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7,31
	45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57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81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1,38
	46년생 절대 친구 사일에 참여치 마라 큰 손해가 있다. 58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70년생 큰 고통은 없다. 82년생 흑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치 마라. 행운의 숫자 : 32,43
	7년생 희망적 설계가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59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1년생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3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성립된다. 행운의 숫자 : 43,45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p><b>Did you win the game?</b> 자네, 그 경기에서 이겼나?</p> <p>A : Did you win the game? B : No, I lost 10-2. A : I hate to say it, but it serves you right. You didn't practice very hard. B : I know.</p> <p>A : 자네, 그 경기에서 이겼나? B : 아뇨, 10-2로 졌어요. A : 이런 말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자네는 그래도 싸. 자네는 열심히 연습을 안했잖아 B : 맞습니다.</p> <p>* lose : 지다, 패배하다 * hate to ~ = 마음이 내키지 않다, 싫어하다</p>	<p><b>頑張(がんば)ってくださいね</b> 힘내세요</p> <p>A : 何かありましたか。顔色(かおいろ)が悪(わる)いですね。 B : 最近(さいきん)仕事(しごと)も恋愛(れんあい)もうまくいかなくて~ A : あら、そうですか。頑張(がんば)ってくださいね。</p> <p>A :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B : 요즘 일도 연애도 안되서~ A : 어머 그렇군요. 힘내세요.</p> <p>* 顔(かお) : 얼굴 * 色(いろ) : 색 * 悪(わる)い : 나쁘다</p>	<p><b>无业游民</b> 백수</p> <p>A : 你做什么工作? B : 我是空中小姐, 你呢? A : 我是无业游民。 B : 无业游民也是好职业。 A : 你说得对, 但是无业游民也是好职业? A : 你说得对, 但是无业游民也是好职业? A : 你说得对, 但是无业游民也是好职业?</p> <p>한글 : 'kōryūkyōmin'      韓語</p>	<p><b>孤城落日(고성낙일)</b> 외로울 고, 새 생, 떨어질 낙(락), 날 일</p> <p>고성낙일(孤城落日)은 적군 속에 고립된 성과 서산으로 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p> <p>당(唐)나라의 시인 왕유(王維)의 칠언절구(七言絶句) &lt;송위평사(送崔評事)&gt;에서 비롯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徵逐將軍取右賢(육축장군취우현) 장군을 쫓아 우현을 잡고자 沙場走馬向居延(사장주마향거연) 모래땅에 말을 달려 거연으로 향한다. 遙知漢使蕭關外(요지한사소관외) 멀리서 짐작하노니 한나라 사신이 소관 밖에서 愁見孤城落日邊(수견고성락일변) 외로운 성에 지는 해의 언저리를 수심으로 바라볼 것을. 여기서의 쓸쓸한 풍경과 외로운 심정을 노래한 데 불과하지만 보통 '고성낙일'이라 하면, 멸망하는 그날을 초조히 기다리는 심정을 나타낸다.</p> <p>* 유의어: 사고무친(四顧無親) 친척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받을 데가 없음.</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대능출판&gt; www.daeneung.com</p>